
나자렛 예수, 우리의 모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제8주간

제8주간: 나자렛 예수, 우리의 모델 들어가는 말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어졌다는 의미를 숙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이고 자유롭고 창조적이며 늘 타자와 관계를 맺습니다. 또 하나님과 비슷하게 지어졌다는 것도 숙고했는데, 이것 역시 자유롭게 받아들이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 인간이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슷하게 성장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성 바오로는 에페소인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에페 5,1)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나자렛 예수를 닮아 가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슷해집니다. “말씀이 하나님”(요한 1,1)이라는 구절처럼 나자렛 예수님은 하나님의 한 위격인 겁니다.

나자렛 예수님은 자신을 “길ियो 진리요 생명”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간적 태도와 행동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인간적 특성과 영적 신념 그리고 실천을 숙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나자렛 예수님에 관해서 그분이 우리처럼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사실 외에도 제법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골에서 자랐고 지방의 랍비를 회당의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노동을 했습니다. 노동자의 거친 손말이죠. 가정을 꾸리는 일에 대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얼마만큼의 밀가루에 누룩을 얼마나 넣을지, 현옷에 새 천 조각을 대면 안 된다든지 등. 포도밭과 무화과나무와 씨앗을 뿌리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지요.

우리는 그분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심한 것을 압니다. 그분은 뭔가를 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요.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 다른 고을에도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 손에 넘겨져야 한다. 그분은 우리처럼 세금을 내야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의 특별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품이란 어떤 사람이 타인들 및 주위 세상과 관련하여 갖게 되는 사고와 감정과 행동의 패턴을 말합니다. 그는 긍정적이고 친절하며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는 진실했습니다.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그가 자신과 논쟁 중인 어떤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요한 16,7)

그는 진정한 지도자이며 율법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파 인사였고, 율법학자와 신학자들에게 대담하게 도전했습니다. 그는 용기가 있었으며 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혔다.”(루카 9,51)

그는 동정심이 많기도 하여 나인의 과부에게 “울지 마라.”고 하면서 외아들을 돌려주었습니다.(루카 7,13) 그는 관대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고쳐 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그가 거절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에는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의 영성은 기도를 많이 한 것으로 두드러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서는 일어나 외딴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마르 1,35) 그는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 청하였고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그는 큰 권능과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는 질병과 죽음과 더러운 영에 대한 권능을 가졌고, 더러운 영은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라고 외쳤습니다.(마르 1,24) 그는 바로 그 일을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위는 분명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그를 잡으러 왔다가 실패한 것은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요한 7,46)

우리는 나자렛 예수님에 대해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다는 것’이 단지 이론 공부나 성경의 기억이 많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에 들어가 그분의 아름다움과 진리에 대한 느낌을 키우는 것입니다. 어릴 적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 ‘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이제 어른이 된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나자렛 사람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이번 주간 우리 기도의 주제입니다.

기도 도움말

그리스도를 본받음

당신은 지난 몇 주간 동안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따르는 큰 은총을 구했습니다. 이제 그분처럼 되고자 하는 더 큰 은총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늘 그것을 위하여 계속해서 복음서와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분이 땅 위를 걸으시는 동안 어떠한지를 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알려 줍니다. 무엇을 즐기고 무엇을 피했는가? 누구를 사랑하였는가, 그리고 혹시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당신은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조차 조금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들은 매우 담대하게 그 길을 갔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배워라.”고 하신 대로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의 마음을 배우려고 했습니다.(마태 11,29)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전 생애를 통해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520항)고 지적합니다. 그가 모범을 보인 첫째 것은 항상 하느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요한 5,19 참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수도 있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 왕이나 중국의 황제로 태어날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성부께서는 나자렛의 소녀를 그의 어머니로 정하였고 때가 차자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왕가의 혈통이지만 정말로 가난했지요. 이 점에서 당신은 이미 그분과 같습니다. 성부께서 당신에게 어머니와 아버지, 태어날 장소와 시간을 정해 주셨지요.

그는 한 민족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 성령님이 수 세기 동안 준비시켜 온 그 민족에서요. 당신과 우리 모두처럼, 예수님은 그 민족에 속하였고 친교를 이루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받아들인다면 이 점에서도 당신은 그분과 같아집니다. 성부께서 당신이 속하고 당신에게 속한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때 그는 한 분이신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사는

민족에서 태어났습니다. 소년 예수는 그 계약을 따라 행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를 가르쳤고 그는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그분처럼 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나도 하느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과 본당과 기도 모임에서 나누는 친교를 통해서 배웁니다.

예수님은 자랐습니다. 그는 작은 아기에서 시작하여 어린 시절을 거쳐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을 해야 했고 한동안 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사촌인 세례자 요한의 도움으로 자신의 성소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성소는 은수자나 요한과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가 아니라, 당신 백성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 생명을 받은 것은 폭압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당신도 지금 살아가는 시간과 장소를 감사히 받아들인다면 그분을 본받게 됩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그래야 하듯이 그는 자신이 활동할 곳으로 카파르나움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성부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종종 뭔가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제자들에게 미리 말했고, 아버지를 신뢰하여 그분이 쓰라린 패배에서 영광을 가져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기 『준주성법』 56장의 한 문장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 없이는 다닐 수가 없고, 진리 없이는 인식할 수가 없고, 생명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나는 네가 따라야 할 길이요, 네가 믿어야 할 진리이며 네가 희망을 가져야 할 생명이다.”

무엇이 오든지 하느님의 손길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똑같이 기쁘게 버리세요. 그리고 모든 것에서 예수님처럼 전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하세요. 분명 이것이 그분과 같아지는 첫걸음입니다.

나자렛 예수, 우리의 모델

청하는 은총

예수님을 더 분명히 알고, 더 애뜻하게 사랑하며,
더 가까이 따르기를 청합니다.

한 걸음 더

우리 종교가 이 지역에서 마른 땅에 흐르는 물처럼 스며
든 이유는 이 사람들이 전에는 결코 알지 못하였던 인간
적 파스함을 주었기 때문이다.

- 엔도 슈사쿠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예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크게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떠했고 어떤 생각
이 들었는지 물어보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해야겠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면의 느낌과
생각을 물을 때에 하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느낌을 알기를 바라십니다.
2. 이번 주간에: 예수님의 생각과 느낌을 당신의 생각과 느낌과 계속 비교해 보세요.
겉낼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 생각을 당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니까요.
3. 주목할 성경 대목: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이미 대단히 성스러운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땅하고
옳은 일을 모두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는 이것을 얼마만큼이나 승인하였는지를 보여 주십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마태 3,13-17

그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래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단상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오늘 저녁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 둘이 문을 두드리면서 당신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청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한눈에 사업가나 공무원들로 보입니다. 그들이 두툼한 멋진 종이봉투를 건네면서 동봉한 문서를 읽으라고 청합니다.

문서에는 DNA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당신이 방금 사망한 왕의 유일한 생존 후손임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 나라 왕실의 유일한 혈통이라는 겁니다. 이제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나라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숨 막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나자렛 예수님에게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이지요. 예수님은 어떤 죄도 없지만 받기로 하신 요한의 세례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서 확실히 예수님을 본받고자 합니다. 모든 지표들이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에페 1:5) 문제는 온 우주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느님, 그리고 현재 70억 인구의 창조주께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일지의 여부이죠.

우리는 이것은 예-아니요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더-덜의 방식으로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예,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과 권위를 받아들였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고통과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줄곧 ‘예!’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줄곧 ‘예!’라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성령의 선물들을—지혜와 통찰, 용기와 공경 등—발휘해서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온 마음으로 돌려드릴 수 있어야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 것처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버지께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나라의 왕손입니다.

성체성사에서 아드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는 우리는 분명 아버지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당황하게 할 수도 있고, 도전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커다란 기쁨입니다.

메모

나자렛 예수, 우리의 모델

청하는 은총

예수님을 더 분명히 알고, 더 애뜻하게 사랑하며,
더 가까이 따르기를 청합니다.

한 걸음 더

예수님은 참으로 신성하시다. 그분의 신성은 충만한 인성
안에서 온전히 표현된다. 좀 더 간단히 표현하면 예수님
은 하느님이 온전히 현존하시는 인간의 위격이시다.

- 윌프레드 해링턴 (도미니코회)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예수님께 존경과 사랑을 갖고 세례 때에 무엇을 느끼셨는지 꼭 물어보세요.
2. 이번 주간에: 당신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성인 세례를 받는다고 (필요하다면) 상상해 보세요. 느낌이 어떨까요? 예수님처럼 느껴지는가요?
3. 주목할 성경 대목: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이미 대단히 성스러운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땅하고
옳은 일을 모두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는 이것을 얼마만큼이나 승인하였는지를 보여 주십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마태 3,13-17

그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래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예수님께서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삶의 독해, 기도를 내 삶에 적용하기

하느님이 “너는 사랑하는 내 아이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가?
예-아니요, 어느 정도인가?

“너는 사랑하는 내 아이”라는 하느님의 끈질긴 주장에 마침내 내가 ‘예!’라고 답할 때에,
내 느낌은 이다.

하느님은 나에게 후하게 선물들을 주신다.
내가 그분께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게 해 주는 선물들은 이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선언을 받아들이고 실현한 덕목들은 특히 라고 본다.

하느님 아버지의 선언을 받아들이고 실현한 예수님의 덕목들 중에서
내가 먼저 성장하고 싶은 것은이다.

나자렛 예수, 우리의 모델

청하는 은총

예수님을 더 분명히 알고, 더 애뜻하게 사랑하며,
더 가까이 따르기를 청합니다.

한 걸음 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초대는 어떻게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각자 하느님 나라에서 살라는 부르심뿐만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세우는 데 협력하라는 부르심도 받았다.

- 무명씨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기도가 쉬울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시니까요. 다만, 기도가 어려워질 때에는 당신이 하느님께 관대하게 응답하는지를 살펴보세요. 특히 부주의하거나 무관심해진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세요.
2. 이번 주간에: 당신이 자비나 하느님 두려움과 같은 어떤 덕목이나 성령의 선물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적어 두고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선한 일을 동경하게끔 하여 은총에서 성숙하게 해 줍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예수님은 특별한 시간을 가려서 당신의 첫 번째 사도들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기잡이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일로 초대합니다. 그들은 즉시 활달하게 응답합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마르 1,16-20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대오를 샅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나섰다.

단상

소속과 친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부른 것은 예수님 자신 및 다른 제자들과 친교를 나누면서 살도록 그런 것입니다. 친교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어떻게 친교를 이루셨나요? 누구나 친교를 누리는 방법이 있는가요?

합창단의 한 단원을 예로 들어 봅시다. 노래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목소리가 있으며 자기만의 리듬으로 노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합창단에서는 다른 단원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정해진 악보대로 부릅니다. 크게 혹은 작게, 빠르게 혹은 느리게도 부르지만 어디까지나 합창단이 하는 대로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합창단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각 단원은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 단원이 자기 목소리와 음악적 취향에 대해 특별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자기만의 고유한 멋과 취향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고집하지 않고 자기 스타일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화음을 이루어 내기 위해 기꺼이 자기 방식을 내려놓는 거죠.

친교는 이와 같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자기만의 습관과 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합류할 때에는 그것을 내려놓았지요. 다른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 다름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나라가 오면 최측근의 자리에 앉혀 달라고 했다가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낸 일을 기억해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자신들의 야망을 내려놓

아야 했지요.

예수님도 자신의 취향을 멀리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선포를 위해 카파르나움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면서 다른 고을에도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카파르나움으로 다시 와 달라고 청했지만, “안 된다. 떠나자.”라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태도가 진정한 초연함입니다. 먼저, 하느님이 주신 모든 것을—부모님, 배우자, 자녀와 친구 및 동료들—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기며 그 모든 것에 대해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 하느님이 부르시는 대로 자유롭게 응답하는 겁니다.

초연함은 죄가 될 때에 사람이나 사물을 멀리하는 데에서 발휘됩니다. 예수님처럼 성장하려면 그분의 초연함과 내려놓음을 계속 키워 가야 합니다. 성 바오로는 초창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퍼진 속담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1코린 10, 23)

우리가 지킬 좋은 좌우명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합창단의 단원처럼 당신은 자신의 기량과 취향을 알고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면 자유롭게 다른 이들과 화음을 맞춥니다. 이것이 친교입니다.

미사 끝의 파견예식 인사 내용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평화로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메모

나자렛 예수, 우리의 모델

청하는 은총

예수님을 더 분명히 알고, 더 애뜻하게 사랑하며,
더 가까이 따르기를 청합니다.

한 걸음 더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분은 당신의 자비로운 행동에 우리를 엮고자 하신다.
- 데이비드 플레밍 (예수회)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기도하려 갈 것을 기억하세요. 지쳐 있으면 당신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 알려주세요. 초조하거나 화가 나거나 다른 어떤 상태라도 마찬가지로 하세요.
하느님은 당신 모습 그대로 사랑스러워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깔을 다룰 줄 아십니다.)
2. 이번 주간예: 예수님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주목하고 기억하려고 해 보세요.
특히 그분의 덕성들과 선물들에 주목하세요.
3. 주목할 성경 대목: 이것을 지금 관상하거나, 했다면 더 숙고하세요. 예수님은 특별한 시간을 가려서 당신의 첫 번째 사도들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기잡이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일로 초대합니다.
그들은 즉시 활발하게 응답합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마르 1,16-20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대오를 샅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나섰다.

삶의 독해, 기도를 내 삶에 적용하기

예수님께서 요청하는 일을 하는 데에 내가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은 이다.

내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로 선택하는 이유는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조화롭다고 느끼는 것은 때이다.

나는 나의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조화를 유지하도록 로써 돕는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과 함께하도록 로 나를 부르신다.

나자렛 예수, 우리의 모델

청하는 은총

예수님을 더 분명히 알고, 더 애뜻하게 사랑하며,
더 가까이 따르기를 청합니다.

한 걸음 더

제자도는 어떤 사람을 따른다는 뜻이다. 단순히 어떤 행동들을 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기도 하다.

- 제럴드 페이지 (예수회)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진짜 예수님을 아는 탁월한 방법은 당신이 관상(觀想 = 관조 + 묵상)하고 있는 장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고 말도 못 한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손이 당신의 귀와 혀를 만지면서 큰 소리로 “열려라!”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 보세요. —‘처음’ 들었겠지요. —어떤 느낌이겠어요?
2. 이번 주간에: 하느님이 당신 안에 심어 주신 재능들과 자질들을 인정하도록 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 감사하세요.
3. 주목할 성경 대목: 예수님은 청각장애인의 감정을 살피 그를 옆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를 친밀하게 만집니다. 그의 귀가 열리게 하고 혀를 풀어 줍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마르 7,31-37

예수님께서 다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래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단상

능동적인 사랑과 덕의 심화

나자렛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고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길을 따라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를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런 기억이 많 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계속적인 회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기 때문입 니다.

하느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대부분의 우리들은 윤리적인 회심, 즉 고의적인 죄로부터 돌아서는 일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몇 가지 계속 노력 을 기울일 것이 항상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 마다 사순절을 지내는 것이지요.

성숙한 가톨릭 신자에게는 개발해야 하는 여러 덕 목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모범은 여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기’(마르 7,37 참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삶에 원동력이 된 덕목들 을 일별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에 순종하였고, 율법을 잘 지켰습니 다. 그분의 전 존재가 사랑이었기에 작은 규칙들도 사랑으로 지키며 행동했습니다. 부정직한 사람들이

율법을 왜곡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허용한 것을 —살인뿐만 아니라, 살인으로 이끄는 미움도— 반대 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현명하시어 당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시작 되자 요르단 건너편으로 떠나 곤경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때가 되자 결연한 용기로 무장하고 단 호하게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는 점잖아서 아이들이 그분을 무서워하지 않았 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 지요. 부드러운 분이었습니다. 나인의 과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서 울지 말라고 하면서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불의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었 으며, 성전에서 하느님의 집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쫓 아낼 때에는 대단히 용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분의 생각 과 행동을 엮고 있는 덕목들을 곰곰이 생각해보세 요. 그는 당신이 이것을 알기를 바라십니다. “고생하 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마테 11,28)

메모

나자렛 예수, 우리의 모델

청하는 은총

예수님을 더 분명히 알고, 더 애뜻하게 사랑하며,
더 가까이 따르기를 청합니다.

한 걸음 더

덕목들은 우리 인생의 일상적인 사건들에 관련되며 마음
의 습성과 우리의 행동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말한
다. 덕목들은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마음의 태도들이다.

- 제럴드 페이지 (예수회)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지금쯤 기도에 관한 요점들을 돌아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본문에 표시를 하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별도로 정한 기도 장소와 시간을 유지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느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경외심을 갖고 떠올립니다.
2. 이번 주간에: 하느님이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 주시고
지금도 해 주시는 좋은 것들에 대해 깊이 감사하도록 노력하세요.
3. 주목할 성경 대목: 예수님은 청각장애인의 감정을 살피 그를 옆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를 친밀하게 만집니다. 그의 귀가 열리게 하고 혀를 풀어 줍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마르 7,31-37

예수님께서 다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래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삶의 독해, 기도를 내 삶에 적용하기

나자렛 예수님에게 발견되는 덕목과 좋은 성품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 자신의 덕목과 좋은 자질의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좋은 것이 당신에게 있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세요.

예수님의 미덕과 좋은 자질 가운데 나도 성장해 보고 싶은 것은이다.

내가 바라는 미덕과 좋은 자질들을 더욱 개발하려면 나는을 할 필요가 있다. (또는 피해야 한다)

.....을 위하여 하느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나자렛 예수, 우리의 모델

청하는 은총

예수님을 더 분명히 알고, 더 애뜻하게 사랑하며,
더 가까이 따르기를 청합니다.

한 걸음 더

자신을 하느님께 내맡긴 이들의 삶은 늘 신비롭다. 별난 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극히 평범하고 자연스러우며 우발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예외적이고 기적적인 선물들을 하느님께로부터 받게 된다.

- 장피에르 드 코사드 (예수회)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기도를 마칠 때 메모를 남기도록 계속 노력하세요.
2. 이번 주간에: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나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려고(필리 2,5) 애쓰고 있습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예수님은 그 사람이 이미 오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건강해지고 싶은지를 물었습니다. 그가 망설이자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요한 5,2-9

예루살렘의 ‘양 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벳자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다섯 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먼 이, 다리저는 이, 팔다리가 말라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서른여덟 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에 저를 못 속에 넣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네 들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것을 들고 걸어갔다.

단상

가능성에 개방하기

당신 자신과 가족 그리고 친구들에게 필요한 덕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에 '양 문' 끝에 있는 벳자타 연못의 교훈을 기억하세요.

그는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 치유가 될 것이라고 믿고 전적으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흔들릴' 때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고정관념이 되어 다른 치유 가능성을 듣지조차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단순히 낫기를 원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예-아니요'로 답하면 되는 질문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확고하게 여기는 방식의 효율성에 대한 도전으로 듣고 지난 38년 동안 자기가 왜 치유가 안 되었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도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없애 버리고 싶은

어떤 습관을 제거하는 데에 생각이 너무 고정된 나머지 그것을 하느님 손에 맡기라는 초대가 들리지 않습니다. '올바로 하고' 또 '옳은 일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나머지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이런저런 습관 때문에 혹은 우리의 특별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벳자타의 남자는 은총을 받아들이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가 하도 자신을 설명하여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통명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당신에게 힘들거나 놀라운 일,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어찌면 하느님도 예수님처럼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라!"

메모

표지석

- 우리는 나자렛 예수님을 알게 되어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변화되기를 바란다.
- 우리는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더 닮게 해 줄 수 있는 관계를 원한다.
-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에 들어가서 그분을 더 분명히 알고 더 알뜰하게 사랑하며 더 가까이 닮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 '성령의 친교'는 선물과 재능들에서까지 자유로워지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 우리는 나자렛 예수님을 의식적으로 닮도록 초대되었다.
- 우리 각자는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닮은꼴로 형성되는 데에 예!라고 해야 한다.
-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덕목들을 강화하고 개발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신다.

한 주간 매듭짓기

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보게 된 것은,

묻고 싶은 질문은,

이번 주간에 일상생활의 체험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꼈다. 그것은,

함께 피정하는 동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